

‘전국노래자랑’ 을 ‘그라미어워드’ 로 만들어 줄래?

이동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캠페인5팀 국장, dongoh.lee@oricom.com

이런 주문을 하는 광고주도, 주문대로 브리프를 써오는 AE도 크리에이터의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다. 실제로 이런 주문을 한 광고주가 있었고, 인상을 좀 쓰긴 했지만 주문을 받아준 크리에이터도 있었다. 그렇게 Créa라는 캐나다 퀘벡의 지역 광고제는 칸느나 클리오처럼 ‘있어 보이게’ 태어났다. 그런데 그 ‘광고주’는 바로 이 광고를 만든 ‘광고회사’ 였다는 사실. ‘광고주’ 말은 안 들어도, ‘사장님’ 말씀에는 껌뻑 죽어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인가?

지금은 지역광고 시간입니다

Créa Award는 몬트리올의 Bos라는 광고회사가 주최하는 Gala Des Coqs D'or(‘금닭 페스티벌’이라는 뜻)를 전신으로 하는 퀘벡 지역 광고제의 renovation버전이다. ‘지역’ 광고를 ‘넓은 주차장, 편리한 교통~’으로 시작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광고주의 커뮤니케이션활동’쯤으로 치부했다면, Créa라는 브랜드는 없었을 것이다. 캐나다 동부, 세인트로렌스강 동쪽의 퀘벡주(州)는 1535년 프랑스의 자크 카르티에가 개척한 인구 750만 명의 지역이다. 1967년 몬트리올을 방문한 드골대통령이 시청 발코니에서 ‘Vive la France!(프랑스 만세)’라는 연설로 퀘벡 분리운동에 불을 지른(?) ‘캐나다 속의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한국 대통령이 메이지 신궁 창가에서 재일교포들을 향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셈이다) 그렇게 프랑스식 자존심을 고수하는 지역이니 광고도 어느 나라 언어로 집행되는지는 뻔한 일이다.

작은 광고주란 없다. 작은 광고가 있을 뿐

‘Quebec’s 3rd annual advertising show’인 Créa는 캐나다 퀘벡 지역에 집행된 ‘불어’ 광고가 대상인 광고제이다. 주정부나 시가 아닌 몬트리올(상의 취지에 맞게 ‘몽레알’로 발음해야 한다)의 한 광고대행사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3회를 맞는 일천한 역사는 두 말하면 잔소리다. 이쯤 되면 ‘어떻게 이 상을 수상할까?’가 관심이 아니라 ‘누가 이 광고제에 출품할까?’가 걱정이다. 국제광고제가 되기에 턱없이 함람미달인이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툴은 철저한 ‘콧대세우기’의 방식이다. 이유 없는 자존심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광고의 거장들에게 날리는 프랑스식 야유

이 광고제의 ‘광고’는 광고계에 명함 좀 내민다는 분들의 ‘자조적인 시선’을 통해 그 ‘비아냥’의 강도를 더한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는 뉴욕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Y&R의 Tony Granger의 한숨소리가 들릴 듯 하다. <그림 1>

56개의 칸느 라이온과 43개의 클리오를 휩쓴 그도, 아직 Créa 수상경력이 없기에 나오는 탄식이다. 뉴욕의 메이저광고회사가 퀘벡의 지역 광고제까지 신경 쓸 일이 있거나 할까? 비운세가 전국노래자랑 수상실적이 없다고 고민하는 격이다. 그럼에도 Créa는 이렇게 외친다. ‘The bar is high(장벽이 좀 높다)’. 마치 Créa가 다른 광고제보다 수상기준이 높고 도전이 힘든 것처럼 목에 잔뜩 힘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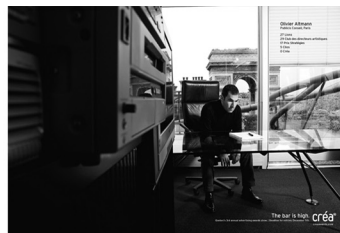
‘남의 떡’을 내 브랜드의 ‘빅모델’로 끌어들이다 파리 Publicis의 Olivier Altmann으로<그림 2>, 런던 BBH의 John Hegarty<그림 3>로 Créa의 조소는 계속된다. 국제적인 명성도 Créa 수상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장되고 호도된다. 경쟁사의 빅모델을 자기 브랜드의 ‘보조모델’로 전략시키는 프랑스식 유머의 극치이다. 세계적인 광고회사 CEO들의 초점없는 시선을 허공에 고정시킴으로써 그 ‘공허’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 프랑스 본토에 대한 퀘벡의 자존심, 미국에 대한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 영국에 대한 프랑스인의 우월감, 영어권 캐나다에 대한 배타성 등이 시리즈마다 절묘하게 녹아 있다. 이 광고의 법칙에 의하면 미스 유니버서도 청양 ‘고추아가씨’를 당해낼 수 없다. 왜냐고? 세계적인 미인도 고추아가씨에 선 발된 적은 없으니까. 그만큼 ‘고추아가씨’의 장벽은 높으니까. ■

광고회사 : Bos, Montreal

<그림 1. Tony Granger편>



<그림 2. Olivier Altmann편>



<그림 3. John Hegarty편>



<그림 4. Alan Russell편>

